

■ 새해 이렇게 하겠습니다 ■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 것” “지역 서민경제 안정화 역점” “건설산업 신성장 동력 발굴” “청년 고용 앞장서 실업 해결”



김대호 도상공회의소협의회장

2016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예로부터 지혜의 상징인 원숭이해를 맞아 지혜와 희망이 가득한 새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강원도는 여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 준비와 SOC 확대 등을 성장 동력으로 삼아 한 발한 발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강원도상공회의소협의회는 지역의 종합경제단체로서 지역현안과 과제들을 적극 해결해 나가고 지역산업 활성화 정책들을 제안하여 지역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중소기업 경영자문, 교육 지원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도 앞장서겠습니다. 2016년에도 도민과 상공인 여러분의 뜻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고 지역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며 웃을 수 있는 동반 성장 시대를 열어가길 기대합니다.



김정일 강원지방중소기업청장

강원지방중소기업청은 올 한 해 도내 중소기업 주도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견인하기 위해 지역 내 견고한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및 서민경제 안정화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기업의 애로 해소 및 맞춤형 지원을 위한 조사·통계 구축을 위해 강원중소기업 지원 통계 연보 구축 및 경영실태·경기 동향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 창업 인프라 재정비를 통한 창업 벤처 활성화 지원에도 앞장서겠습니다. 이와 함께 창업교육 지원과 성장사다리 구축을 보다 체계화하고 창업자를 위한 맞춤형·단계별 장업을 추진하고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창업을 비롯해 모든 직원이 현장에서 답을 구한다는 생각으로 많은 현장을 방문, 정책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수요자 맞춤형 정책으로 강원지역 중소기업에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오인철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장

새로운 희망을 품은 201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도민 여러분 모두 소원 성취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묵묵히 맡은 일에 정진한 경영인 여러분과 일선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린 건설인 여러분에게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16년 새해에는 우리 건설산업이 한층 더 성장하는 한 해가 되길 바라며 ‘건전한 시장 환경 조성’과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로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건설산업 만들기에 힘쓰겠습니다. 특히 종합건설업 업역 및 권익 보호, 건설협회 혁신을 위한 시스템 구축, 다양한 사회공헌사업 추진 등 현안에 앞장서고 무엇보다 협회 운영의 근간인 회원사에 실질적 혜택 부여 등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도진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회장

강원 중소기업인 가족 여러분 2016년에도 모두 원하시는 소망을 이루시고 가정에도 즐거움과 행복이 넘쳐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해 우리 경제는 내수와 수출 동반 부진, 페르스 쇼크, 장년 고용절벽 등 안팎으로 다사다난(多事多難)했던 한 해였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 경제는 내수침체의 중국경제의 저성장에 수출마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같은 배를 타고 강을 건넌다’는 의미의 동주공제(同舟共濟)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렵지만 동주공제의 정신으로 중소기업이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로 협력한다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중소기업이 앞장서 청년 고용에 나서 실업문제 해결에 이바지할 것입니다. 또 지역 중소기업을 위해 공공구매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유관기관과도 협력하겠습니다.

“건설산업 신성장 동력 발굴”



오인철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장

새로운 희망을 품은 201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도민 여러분 모두 소원 성취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묵묵히 맡은 일에 정진한 경영인 여러분과 일선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린 건설인 여러분에게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16년 새해에는 우리 건설산업이 한층 더 성장하는 한 해가 되길 바라며 ‘건전한 시장 환경 조성’과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로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건설산업 만들기에 힘쓰겠습니다.

특히 종합건설업 업역 및 권익 보호, 건설협회 혁신을 위한 시스템 구축, 다양한 사회공헌사업 추진 등 현안에 앞장서고 무엇보다 협회 운영의 근간인 회원사에 실질적 혜택 부여 등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설시장 공사비 현실화

건설시장의 공사비 현실화가 속도를 내고 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부터 표준품셈 일부 개정안을 시행하는데 이어 오는 3월에는 표준시장단가 추가 공고를 예고했다.

우선 국토부의 표준품셈 일부 개정안은 공사비 현실화에 초점을 맞췄다.

이같은 표준품셈 현실화에 이어 공사비 하락의 원인으로 지적된 실적공사비 대안인 표준시장단가도 신설된다.

건설업계는 표준시장단가 확대가 공사비 현실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위윤기자 faw4939@kwnews.co.kr